

예절이라는 말은 예의범절(禮儀凡節)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예의(禮儀)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말투나 몸가짐, 행동거지를 말하며, 범절(凡節)은 그러한 말투와 몸가짐, 행동 등의 정해진 양식과 절차를 뜻한다.

예절의 뜻을 좀 더 종합해보면 예절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서로가 함께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禮)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예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땅한 도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유율법 속에서 예절이 나왔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였다. 구세주께서는 자유율법(自由律法)에서 예절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신학 박사도 그 어떤 박사도 자유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이다. 자유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과거 전도관의 영모님(박태선 장로)도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은 하였지만 자유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못했다. 그냥 양심의 법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양심의 법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다. 각기 자신의 기준대로 양심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도나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 강도나



예절



도둑놈을 잡아서 왜, 나쁜 짓인 줄 알면서 강도짓이나 도둑질을 했느냐고 물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고 보니,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인하여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자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므로 단순히 양심대로 살라는 말도 애매하다.

예절의 근본이 되는 자유율법에 대하여 구세진인 조희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유율법이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회생적인 사랑의 마음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 "자유율법 속에서 예절이 나온 것이다. 예절 속에서 자유율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자유율법 속에서 예절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예절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예절도 못 지키는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성도의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세상 예절도 못 지키는 사람이 승리제단에 나온다면 그것은 승리제단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자기보다 한 살 위의 사람이라면 깎듯이 형님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

가 누구든지 병신이건, 여자가건, 남자가건 깎듯이 형님이나 누님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의 예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나온 것이다. 뒷사람한테는 꼭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주체 영이 마귀일 때 망령된 행동이 나오는 것

"나의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의 섬세한 부분에서 왜 실수가 나오느냐 하면 그 주체 영이 마귀 영일 때, 마귀는 망령된 영인 고로 망발(妄發)을 하고, 망령(妄靈)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 영이 하나님일 때는 너무너무 온유겸손(謙遜)하고 겸허(謙虛)한 영인 고로 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 걸음걸이조차도 그렇게 예의바르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다." - 구세진인 조희성

위의 구세진인 조희성님의 말씀과 같이 특히 승리제단의 열광인 승리제단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깎듯한 예를 갖추어 대할 수 있어야 한다. 10월 3일 개천절 '홍익대통령 정도령과 불사영생의 통일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승리제단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그때 외부 인사들이 승리제단에 왔을 때 "과연 승리제단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법인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참된 예의범절을 갖춘 성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What is the true origin of cosmos?
Not Big-Bang But Big-Split!
우주의 진정한 근원?
빅뱅이 아닌 대분열(Big-Split)!

▶ About six thousand years ago, there occurred a great war between God and Satan. It w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force of righteousness and the force of evil.

약 육천 년 전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발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과 마귀의 악령 사이의 대립이었다.

▶ However, strange to say, the force of righteousness, that is, God, was conquered by the cunning imitative operation of Satan and lost his great Kingdom, which is called the Garden of Eden in the Bible.

하지만 유감스런 이야기지만, 선(영생의 영)의 힘 즉 하나님이 마귀의 교활한 모방력에 의해 정복당하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동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게 되었다.

▶ It was the most miserable event in human history. On account of this event, God was conquered by Satan, His Kingdom was destroyed and the oneness of His Kingdom was split into multiplicity, as these days.

이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마귀신에 의해 정복당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인 에덴동산은 파괴되었고 한몸이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의 인간형상(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으로 분열되었다.

▶ Some scientists think that this cosmos originated from the "Big-Bang". Yet, they are wrong. Truly speaking, this cosmos we live originated from the "Big-Split", God Kingdom divided by Satan.

몇몇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마귀에 의해 분열되신 하나님의 세상이 대분열(Big-Split)의 형상이다.

▶ The world in the beginning was under a system of Trinity. In the garden of Paradise were God, Adam and Eve, and they were One. However, this cosmos today consists of God divided by satan.

태초의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였다. 에덴동산 천국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세 존재가 하나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우주는 마귀에 의해 조개진 하나님의 세상이다.*
by Alice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담 속의 영생학

누워서 침 뱉기

주님께서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지,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부모한테 불효를 하면 단명한다고 하셨다. 이는 신명기서 5장 16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구절을 그대로 일러 주신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경 별역잡아환경(別譯雜阿含經)에도 석가세존이 "만일 하늘을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하늘은 바로 자기 집에 있기 때문이니라."고 하였다. 참으로 오늘날 생미륵부처님이 가르쳐주시기를 "우리의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또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5대 6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님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다고 해야 이치가 맞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부모님은 곧 하늘인 것이다. 이렇게 부모

님이 하늘이면 조상님 역시 하늘이요 최고의 조상은 하나님님이 분명해진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이다. 승리제단에서는 단군은 아담의 다섯 번째 아들 이자 장자상속을 받은 '단'이며, 단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하나님의 신이 아담에게 옮겨졌고 아담의 하나님이 단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그래서 단군의 후손인 한민족은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기록된 요셉자파는 에브라임지파라고 볼 수 있으며 모세 당시부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에는 항상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열외로 빠졌다(민수기 1:49). 그렇다면 단지파가 들어갈 자리에 레위지파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계 7:7)은, 제사장 지파의 축대가 단지파로 옮겨졌다는 계시(啓示)다. 그런데 자신의 조상이 단지파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빠졌다고 적그리스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단군을 모독하는 일이며 자신의 조상에게 침 뱉기가 되어 그 침이 곧 자기에게 떨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습관적인 추측 표현과 비논리적인 표현

아래문장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추측 표현들과 논리적이지 못한 표현을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자.

1.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니 것 같다'는 추측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2. 내년에는 부동산 투기 역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 같이 보여진다. → 추진해야 한다.

그의 의견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옳은 듯하다./ 옳다.

위의 두 문장 모두 지나치게 완곡하고 소극적인 표현이므로 고쳐야 한다.

3. 이 인형은 너무 예쁘다. → 매우/ 무척

'너무'를 사용하면 '덜 예뻐' 였다면 '좀 좋겠다.'는 뜻이 내포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우, 무척'의 뜻으로 대강 대강 쓰고 있다.

4.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이다. → 좋아하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우리말에서 '가장'은 하나만을 가리킬 뿐이어서, '~가운데 하나' 같은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5.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문 등에서 자주 쓰는 번역투의 문장인데,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해야 우리말다운 문장이 된다.

6. 우리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 폐수만을 내보낸다. → 우리 회사에서는 오염된 폐수는 꼭 정화하여 내보낸다.

이미 정화한 물인데 '오염 폐수'라 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7. 회장은 회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있으나

뒤 절은 앞 절에서 말한 내용, 즉 회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있으며'를 '있으나'로 바꾸어야 한다.*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구술 김만철 / 정리 권인부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야!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은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